

# “좋은 취지였는데...” 안락사 파장에 ‘케어’ 후원기업 당혹

아시아나 “추이 지켜봐야” 당황  
리딩프로스·한국야쿠르트도 고민  
후원 손배소 제기 가능성은 낮아



15일 서울 종로구 케어 사무실 문이 닫혀있다. /이법종 기자

동물권단체 케어의 안락사 파장이 ‘후원 기업 기망’ 논란을 불렀지만,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기망 당한 기업의 손해 발생 정도를 쉽게 따질 수 없다는 분석이다.

케어를 후원해온 기업들은 박소연 대표의 안락사 지지 폭로 사태를 예외주시하며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9월 케어와 해외입양견 운송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등 미주지역 입양견 인술에 나선 이동봉사자에게 체

크인 카운터 제공과 비즈니스 라운지 이용, 무료 위탁 수하물 추가 등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아시아나 측은 이번 안락사 소식에 당황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해외 입양견 이동봉사자 지원이 이번 사태로 퇴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시아나 관계자는 “좋은 취지로 시작한 지원이고, 케어 자체가 아닌 박 대표 주도로 안락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추이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박 대표와 관계 없는 직원들과 동물들도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지원 중단을 포함한 대책은 향후 사법적 절차 등을 지켜본 뒤에 논의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화장품 판매 수익 일부를 후원하는 리딩프로스 역시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리딩프로스는 지난해 6월 케어와 협약을 맺고 ‘피부양 마스크’ 판매 수익 일부를 케어에 기부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주말에 뉴스가 나온 뒤 직원들이 이 주제에 대해 논의 하고 있다”며 “법적인 문제에 대한 검토나 대응 방향 등 구체적인 방침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016년부터 케어에 기부금을 전하고 있는 한국야쿠르트도 걱정스런 눈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케어는 기부금을 개 사료비와 수술비, 청소년 동물사랑클래스 운영 등에 사용했다. 한국야쿠르트 관계자는 “일단 추이를 보며 검토중”이라고 답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들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 제기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본다. 회사의 비영리단체 후원은 광고 모델의 행위로 기업 이미지가 실추된 상황과 다르기 때문이다.

박 대표의 안락사 지지를 폭로한 케어 직원 A씨 측 법률 대리인 권윤희 변호사는 “기망을 당한 사실만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하려면 그에 따른 손해가 발생했어야 하는데,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는 각 회사가 검토해야 한다”며 “케어

로 인한 회사 이미지 실추 등 손해가 수치화되거나, 정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손해 등 인과관계를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 대리인 권 변호사는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박 대표를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박 대표가 안락사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후원을 받아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지속돼 상습사기 혐의가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동물학대 혐의도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권 변호사는 “업무상 횡령도 인정될 여지가 있다”며 “후원금 모금 내역에 동물 구조와 치료, 입양 절차만 얘기했기 때문에 안락사 부대비용은 용도를 벗어난 사용으로 봐서 업무상 횡령도 무리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법종 기자 joker@metroseoul.co.kr

## 대학가 소식

### 중앙대

#### 예비 고3 워밍업 프로그램

중앙대(총장 김창수)는 22일 서울캠퍼스 102관(R&D센터)에서 예비 고3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비 중앙인 워밍업 프로그램’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중앙대 입학처에서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예비 고3들과 학부모 간에 입학정보를 공유하고, 대입 전형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수험생들의 자신감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2020학년도 학생부종합평가 전형의 평가 방향과 재학생들의 합격 사례를 들을 수 있으며, 학생과 학부모가 팀을 이뤄 학생부 기반 실습에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준비된다.



중앙대 관계자는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필요한 예비 고3과 학부모님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더 잘 대비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중앙대 입학처는 17일까지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을 받아 선착순 100팀을 모집한다.

### 경희사이버대 금융부동산학부

#### 자산관리 콘서트 개최

경희사이버대학교는 금융부동산학부가 오는 19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삼성동 코엑스 3층 컨퍼런스룸 318호에서 ‘2018학년도 자산관리 성공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자산관리 성공 콘서트는 금융부동산학부 금융경제전공의 교육목표인 자산관리 전문가 양성을 위해 금융과 부동산 현장 저명인사를 초빙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특강으로 진행된다.

주제는 재학생 대상 설문문을 토대로 선

정됐다. 실무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 재학생은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유익한 강연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강은 서울대 경제학부 안동현 교수가 ‘금융위기와 자산관리’를 주제로 진행한다. 안 교수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경영대학 부교수, 스코틀랜드왕립은행 퀀트전략본부장, 자본시장연구원 원장을 역임하는 등 관련 분야 저명인사다.

특강 이후 종합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금융위기와 자산관리, 규제강화, 자산관리 비즈니스 모델 등 다양한 시각의 정보 공유도 진행된다.

### 삼육보건대

#### 정시 경쟁률 ‘22대 1’ 전문대 중 가장 높아

삼육보건대학교(총장 박두한)는 2019학년도 정시 원서접수를 지난 11일 마감한 결과 220명 모집에 4866명이 지원해 평균 22.1대 1의 경쟁률을 기록, 서울권 전문대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삼육보건대 정시 모집 경쟁률은 2017학년도 18.3대 1, 2018학년도 19.2대 1 등으로 매년 높아지는 추세다.

가장 많은 인원을 뽑는 간호학과는 90명 모집에 2560명이 지원해 28.4대 1, 치위생과는 63명 모집에 1216명이 지원해



19.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14명을 모집하는 의료정보과에는 502명이 몰려 35.9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밖에 뷰티헤어과 12.4대 1, 노인케어창업과 12.1대 1, 피부건강관리과 11.2대 1, 아동보육과 10.0대 1 등의 경쟁률을 보였다.

삼육보건대 정시 면접은 오는 24일 9시 30분부터 실시되고, 합격자는 내달 8일 발표된다.

/한용수 기자

# “대기업 사원 연봉, 차장되면 2배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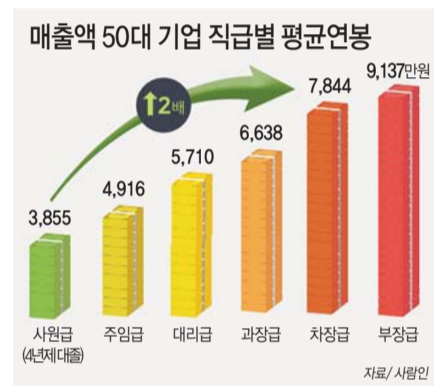
연봉 상승폭 GS칼텍스가 최고  
4년제 대졸 평균연봉 가장 높아

매출액 기준 50대 기업 사원급 연봉이 2배가 되는 시점은 차장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원-부장 평균연봉 상승 폭은 GS칼텍스가 가장 컸다.

15일 사람인이 매출액 상위 50대 기업(CEO 스코어데일리 기준) 중 자사의 연봉정보 서비스에 데이터가 확보된 46개 대기업의 직급별 평균연봉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직급이 높아질 수록 평균 1056만원 씩 연봉이 상승했다. 직급 상승에 따른 평균연봉 상승률은 19.1%였다.

사원급 평균연봉은 학력별 차이가 적지 않았다. 4년제대졸 사원 평균연봉이 3855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2,3년제 대졸 3239만원, 고졸 2846만원 순으로, 고졸 사원과 4년제대졸 사원 평균연봉 차이는 1009만원에 달했다.

이어 주임급(4916만원), 대리급



(5710만원), 과장급(6638만원), 차장급(7844만원), 부장급(9137만원)으로 직급이 높아지면서 평균 연봉이 상승했다. 4년제 대졸자를 기준으로 사원에서 연봉이 2배가 되는 시점은 차장급이었다. 사원에서 부장까지 승진할 경우 연봉은 평균 139.1% 상승했다.

연봉이 가장 많이 상승하는 시기는 사원급에서 바로 위 직급인 주임급으로 승진할 때로, 평균 27.8%(1061만원) 올랐다. 이어 주임급-대리급(16.7%), 대리급

-과장급(16.4%), 과장급-차장급(18.3%), 차장급-부장급(16.5%)으로 조사됐다.

4년제 대졸 기준으로 사원급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기업은 ▲SK하이닉스(4552만원)였다. 이어 ▲삼성디스플레이(4468만원), ▲삼성전자(4451만원), ▲포스코대우(4441만원), ▲두산(4431만원)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사원과 부장사이의 평균연봉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기업은 ▲GS칼텍스(7288만원 상승)가 1위였으며, ▲SK에너지(6873만원 상승), ▲하나은행(6771만원 상승), ▲국민은행(6503만원), ▲중소기업은행(6457만원 상승) 순으로 대부분 에너지 기업, 금융권의 연봉 상승폭이 컸다.

한편, 사람인은 연봉정보 서비스를 통해 자사에 등록된 이력서를 기반으로 국민연금, 나이스 평가정보, 알리오, 고용보험 등의 연봉정보를 포함해 총 526만개의 연봉 데이터를 머신러닝을 활용해 분석한 정보를 제공한다.

/한용수 기자

### 밀레니얼 세대 구직자

#### “대기업보다 中企, 연봉보다 직무”

1982년~2000년 사이 태어난 세대를 일컫는 ‘밀레니얼 세대’ 구직자들은 입사경쟁이 치열한 대기업보다 원하는 직무를 할 수 있는 중소기업 취업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직장을 선택할 때 연봉보다 어떤 일을 하는지를 더 중요시했다.

15일 잡코리아가 알바몬과 함께 올해 취업준비를 하는 밀레니얼 세대 구직자 10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취업활동 시 가장 고려하는 요인으로 ‘직종·직무분야’(28.0%)를 꼽은 응답자가 ‘연봉’(27.9%)보다 많았다. 이어 ‘정규직 여부’(13.4%), ‘회사 주변 편의시설이나 교통 등 도시 접근성’(12.6%), ‘업종’(8.1%), ‘회사 규모 및 인지도’(6.5%) 순이었다.

특히 고용형태로는 ‘반드시 정규직이어야 한다’는 응답이 10명 중 6명 풀인 59.4%로 가장 많았지만, 나머지 36.7%는 ‘비정규직이라도 괜찮다’고 응답했다.

취업을 원하는 기업규모도 ▲직원수 100명~300명 미만 기업을 선호하는 경향

이 28.9%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직원수 300명~500명 미만(24.6%) ▲직원수 50명~100명 미만 기업(20.1%) 등의 순이었다. 반면 직원수 1000명 이상 대기업 취업을 가장 선호한다는 응답자는 10.2%로 10명 중 1명 정도 수준에 불과했다.

선호하는 업종으로는 성별 차이가 드러났다.

여성은 ▲식음료·외식·호텔·항공 등 서비스업종이 20.6%로 가장 높았으며, ▲미디어·문화·예술 관련 산업(13.9%) ▲의료· 제약·사회복지분야(11.4%) ▲교육업(10.3%) 등의 순이었다. 남성의 경우는 ▲IT·정보통신업이 16.5%로 1위를 차지했으며, ▲전기전자·반도체·자동차 등 제조·생산·화학 분야(15.1%) ▲서비스업(14.8%) 순으로 높았다.

취업을 가장 기피하는 업종으로는 여성 구직자들은 ▲제조·생산·화학업(19.4%)을, 남성 구직자들은 ▲서비스업(18.7%)을 꼽아 명확한 차이를 드러냈다.

/한용수 기자

### 메가스터디 교육

#### 수능 국어 유대종 강사 1등급 학습전략 설명회

메가스터디교육은 오는 21일과 28일 각각 창원과 대전에서 국어영역 유대종 강사가 진행하는 ‘유대종 1등급 인사이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어렵게 출제된 국어영역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학습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특별 기획됐다.

메가스터디교육 국어영역 스타강사인 유대종 강사가 2019학년도 수능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2020학년도 수능 국어영역 대비를 위한 핵심 전략을 전한다. 또 수험생들의 국어영역 학습과 관련한 고민에 대해 직접 답변해 주는 시간도 별도로 마련된다.

설명회에는 고등학생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지역별 행사 전날까지 메가스터디교육 사이트에서 신청 한 후, 핸드폰으로 받은 입장바코드 또는 예약확인증 출력본을 행사 당일 진행요원에게 보여주면 참석할 수 있다.

/한용수 기자